

**나 예수는 오직 너희가 멸망하지 않도록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본 문 요한복음 3장 16-21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지, 어떤 목적 때문인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더 확실히 말해 줄 테니 확실히 듣고 행하여 인생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누리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 온 생명들을 위해 말씀합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과 지도자들도 말씀을 듣고 더욱 깨닫고 진리 충만하여 희망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핵심 단락>

전능하신 삼위의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어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탄 마귀들이 사는 곳, 영원히 고통 받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궁핍히 여기시고 우리 영과 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보다 불쌍한 우리 영과 육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떤 손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영과 육만 100% 해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다만 우리 영과 육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고통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삼위의 하나님은 마음의 고통을 겪으실 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멸망받을 죄인들을 위해 죽어 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시대가 악하여 멸망받을 행위를 하며 주님을 대하니, 모두 멸망받지 않도록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을 위해 죽어 주신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 죽어 주신 것이 아니듯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당할 우리들의 영혼을 보시고 아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00%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으려 하고,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다시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기 바랍니다. 잘못 인식하고 믿으면 제대로 못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 구원해 주는 것인데 ‘구원해 주는 자에게 큰 유익이 있어서 구원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올바르게 생각해야 선생같이 구원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자기가 몸부림쳐 열 일 제쳐 놓고 최우선권으로 주님을 믿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보다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시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을 통해 막대한 시간과 돈과 정성과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투자하십니다. 우리 영혼 구원뿐 아니라 우리 육신도 세상에서 잘되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과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살아 보기 바랍니다. 육신이 정말 잘되는지,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얼마나 기쁜지, 영이 정말 잘되는지 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오직 상대를 위해 쏟아 주시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쉬울 것이 없으신 신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중을 올립니다. 자기를 위해 상대를 위해 주고, 섬겨 주고, 사랑해 줍니다. 전능자 삼위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많을수록 더 뛰고 더 노력하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직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전심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전능자를 제대로 알아야 그 자리에서 마음에서부터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진리의 반석 위에서 신앙을 굳건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전심으로 행합니다. 선생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절대자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성공한다고 가르쳐 주니 믿고 끝까지 행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도 처음에는 주님을 잘 믿고 최우선에 놓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두 다 해 준다. 나 예수가 시키는 대로 나와 같이 하면 대성공하고 실패하지 않는다. 다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연단은 있고 고난은 있다. 연단 후에 큰 것을 얻게 된다. 그리고 고난을 받음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약자를 위해 희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수천 배나 더 받는다.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받는다.” 하셨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살아 줍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권을 안 따집니다.

<영상1>

①

<자막과 설명>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함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으라고 함은 우리 영혼이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가지 말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100% 우리를 위해 구원하십니다.

② 선생님 스스로 산기도 다니고, 전도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

외치는 모습, 청중 앞에서 외치는 모습, 월명동 일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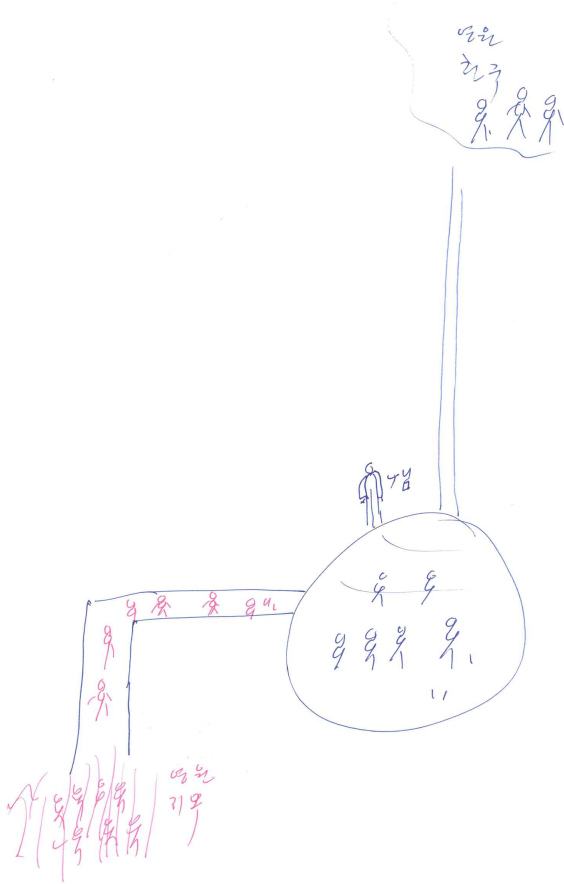
<자막과 설명>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선생같이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주님의 일을 자신의 일같이 전심으로 행합니다. 고로 표적이 일어납니다.

<자막>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가?

오직 우리 영과 육의 구원을 위해서다.

이제부터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2>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상대를 도와줄 때 결국 자기를 위해 도와준다. 그러한 인식으로 사는 인간은 하나님과 나 예수가 구원해 주고 각종으로 도와줘도, 하나님과 나 예수를 위해서 구원하고 돕는 것으로 인식한다. 인식을 잘못하고 사고를 잘못하면 꼭 죽을 곳에서 살려 줘도 살려 준 나 예수가 살려 준 만큼 큰 유익을 본 것같이 생각한다.

나 예수는 영원히 흠 잡을 수 없이 온전하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라. 낮고 천한 너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너희 죄를 대속하려 희생하고, 전능자를 안 믿는 너희 마음을 감동시켜 각종의 것을 해 주면서 믿게 하여 육도 영도 구원시켜 주었다.

너희 육신도 전능자 하나님과 나 예수와 성령님이 안 도왔으면 벌써 죽었다. 생명 관리는 자신의 힘으로도, 부모의 힘으로도 100% 완전하게 못 한다. 나 예수를 안 믿었어도 인생들이 꼭 죽을 곳에서 지켜 살려 주었다. 후에 믿을 것을 생각하고 그같이 해 준 것이다. 죽을 곳에서 한 번만 살려 줬어도 평생 고마워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살아난 몸으로 평생 살기 때문이다. 너희 선생은 자기 육신을 죽을 곳에서 살려 줬다고 감격 감사하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나의 은혜를 갚겠다며 수많은 자들을 전도하지 않았느냐.

<영상3>

<자막과 말씀> 전능자 하나님과 나 예수와 성령님이 너희 생명을 죽을 데서 살려 주지 않았으면 벌써 육이 죽어 썩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민족도 그러했다.

→ 각종 죽을 고비에서 구사일생한 모습들

- 한 가지 예) 산길에서 내려오다가 높은 턱이 있어서 바닥에 살짝 점프를 했다. 그 순간 힘이 앞쪽으로 쏠려서 머리가 앞으로 쏠렸다. 하체는 ‘I’자로, 상체는 ‘—’가 되어 몸이 ‘ㄱ’자가 된 것이다. 그 순간! 버스가 머리카락을 스치고 ‘슌’ 하고 지나갔다. 만일 1mm만 머리가 더 앞으로 쏠렸어도 ‘슌’ 지나가는 버스에 머리를 치어서 즉사하고 말았을 것이다.

→ 선생님 베트남전에서 구사일생한 모습들

- 적이 선생님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고 있었다. 이때 ‘사랑하라.’라는 음성이 들렸고, 적이 갑자기 여동생으로 보였다. 그래서 뛰어가 적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적도 총을 내려놓고 울었다.
- 혼바 산에 수색 작전을 하러 갔을 때 방망이 수류탄을 발견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선생님 목을 강하고 세게 탁 쳐서 방망이 수류탄이 저쪽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때 방망이 수류탄이 ‘깡’ 하고 터졌다. 알고 보니 베트남들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놓고 돌로 눌러놓아 누가 들기만 하면 수류탄이 터져서 죽도록 부비 트랩으로 설치한 것이었다.

너희를 위해서 “나 예수를 믿어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육도 잘되고, 영도 멸망받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받지 말고 천국에 와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라고 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평소에 “부지런하여라. 온전하여라. 이성 향락에 빠지지 말아라. 참고 견디라. 자위행위 하지 말아라. 참고 견디라. 세상 오락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여 나 예수의 일을 하여라. 주일, 수요일, 성령집회에 참석하고 새벽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여라. 정 못 오면 집에서 기도하여라.” 하는 것도 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잘되라고 하는 것이다. 나 예수가 잘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예수는 성자로서 더 잘될 수 없이 전능자의 위치에서 영원히 잘되어 존재하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여 내 것까지 누리라고 하는 것이다. 나의 말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사고하여라. 이 시간부터 모두 제대로 생각하고 나 예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며 살기 바란다.

한 이야기를 들어 보자. 어떤 재벌가가 길을 가다가 너무 초라한 집이 있어 그 집에 들어갔다. 거기서 초가집에 사는 사람의 사연을 듣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을 믿으면 잘될 것이요.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나랑 친하게 지내시라.” 했다. 초가집에 사는 사람은 재벌가가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했으며 재벌가의 말을 필요 없게 생각했다.

재벌가가 초가집에 사는 사람으로 돈을 벌게 하여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 했겠느냐. 돈을 좀 더 벌어서 자기 부와 명예를 축적하려 했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그 재벌가는 수백 개의 빌딩과 별장을 가지고 있고 돈을 은행에 쌓아 놓고 쓸 곳이 없어서 자기 말을 듣는 자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다니는 자였다.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그 재벌가의 말을 듣고 행했으면 즉시 별장 하나를 주려고 했었다. 그러나 초가집에 사는 자가 그 뜻을 모르고 자기 복을 찾으려 하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평생 고생하는 것이다. 오직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자만 얻을 것을 얻는다.

나 예수도 너희들 앞에 그러하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너희 선생을 쓰고 다니면서 시대 복음을 전하며 인생들의 육과 영에게 하늘 축복을 주었다. 그 누가 꺾박하고 악평해도 시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예수를 따르고 내가 보낸 너희 선생을 따른 자들은 축복을 받고 잘되어 빛을 내며 살고 있다.

나 예수는 사명자를 통해 은밀히 나타나서 그를 통해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해 주고 간다. 육과 영에게 축복을 주어 그 축복이 영원히 가게 한다. 나 예수가 한 일이 전능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다. 그러니 참으로 크고도 큰 것이다.

새로 온 자들아. 처음부터 잘하자. 너희가 표적을 일으키는 신앙을 하여라. 처음부터 세상을 끊고 나 예수와 일체 되어 깨끗하게 사는 것이 표적이다. 그리하면 나 예수도 너희에게 표적을 일으킨다. 내가 어떤 표적을 일으키는지 보려면 너희가 먼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여라.

너희가 이 역사로 온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많은 자들 중에 너희가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길에 오게 된 것이다. 시대 복음을 전했으나 듣지 않고 외면하고 간 자들에게는 언제 복음이 또 들어갈지, 기약이 없다. 한 번 복음의 기회를 놓치면 금방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미 섭리역사로 와서 나 예수를 믿고 따른 자들아. 너희 영과 육이 멸망받지 않도록 너희를 구원하려고 나 예수가 몸부림쳤으니 그 가치를 상실하지 말고 잘하여라. 하나님과 나 예수를 위해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고 살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고 살라고 하는 것임을 깨닫고 믿기 바란다. 이것이 금주 말씀이다.

오직 자기 구원과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인데 이를 모르고 믿지 않고 믿어도 형식으로 믿은 자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때가 되어 심판받고 육신은 고통을 받고, 그 영혼은 피할 길이 없어 모두 사망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지옥, 무저갱, 음부, 악영계를 못 보았더라도 내 말을 믿어라.

너희 형제들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와서 보고 말하지 않았느냐. 옳은 말을 했는데 안 믿는 것이 불신이다. 옳은 말은 오직 나 예수다. 내 말을 믿고 행하는 자는 행복한 자다. 내가 그에게 천국을 상속할 테니 이왕이면 온전하게 행하자. 지금까지 행한 데서 조금만 더 하면 온전해진다.

<영상4>

① 다음 자막에 따른 영상들이 나오며 밑에 자막 처리

<자막> 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여라. / 컴퓨터 놀이에 빠지지 마라. / 세상 오락에 빠지지 마라. / 이성 사랑에 빠져 살지 마라. / 자위행위 하지 마라. / 어서 부지런히 생명길을 가라. / 기도하여라. / 참고 견뎌라. / 새벽에 기도하여라. /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라라.

<자막> 이렇게 하라고 함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느냐?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② 다음 자막에 따른 영상 제작

<자막과 말씀> 어떤 재벌가가 길을 가다가 초가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만나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며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잘됩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친하게 지냅시다.” 했다. 그러나 초가집에 사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재벌가는 자기 말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주려고 했다. 그러나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으니 자기 복을 차고 평생 고생하게 되었다.

③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말씀하신다. “저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자막과 말씀> 나 예수도 지난 30년 동안 너희 선생을 쓰고 다니면서 너희를 이 시대급으로 구원하기 위해 시대 복음을 전했다. 지금도 그러하다.

④ 섭리사로 전도되어 빛을 내며 사는 자들의 모습

<자막과 말씀> 그 누가 악평하고 핍박해도 시대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른 자들아. 너희는 내가 보낸 자를 통해 전하는 나의 말을 더욱 잘 듣고 행하여 내가 이 시대에 주는 축복을 영육 간에 다 받고 살아라.

⑤ 지구 (우상 섬기는 자들, 예수님 안 믿는 자들, 복음 불신자들)

/

영계 대기소 (지옥에 가기 직전에 있는 영혼들)

/

지옥 (이미 지옥에 간 자들의 영혼들)

<자막과 말씀> 신약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긴 자들과 복음을 불신하고 나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과 믿어도 형식으로 믿은 자들의 영혼은 이미 사망에서 살고 있다. / 또한 나 예수가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그렇게 외쳤어도 나의 말을 안 듣고 제 갈 길을 간 자들의 육은 사망에서 의인들을 악평하며 그로 인한 고통을 받고 살고, 그 영은 지옥, 음부, 무저갱의 대기소에서 지금도 갇은 고통을 받고 산다.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은 곧바로 정한 곳으로 가게 된다.

⑥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섭리역사로 온 자들아. 오직 너희 영과 육을 구원하기 위해 나 예수가 몸부림쳤으니 그 가치를 상실하지 말아라.

나 예수 앞에 인색하게 감사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도 말아라. 나 예수는 그 엄청난 천국의 금은보석 집과 세계를 주는데, 너희가 내 앞에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고 억지로 행하면 되겠느냐. 사랑도 자기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의 사랑을 받으면 되겠느냐. 정말 뜨겁게 진실로 행해야 그 행위가 자기 영에게 모두 가서 영이 그 행위를 받고 변화된다.

나 예수가 오직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불러오고, 말씀했건만 그것을 몰라서 못 했다면 이제 제대로 깨닫고 속히 나의 말대로 행하여라. 몰라서 못 할 것을 알고 행하라고 말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행할 것만 남아 있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을 빈다. 너희를 위해 지금껏 오직 나 예수가 전심을 다해 말해 주고 도와주었다. 사랑한다. 살롬!

<영상5>

* 예수님 인사 “오직 너희를 위해 역사하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불러오고, 도와주고, 말씀하였으니 이제 깨닫고 온전히 행하기 바란다. 살롬!”